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마이클 센델팀

1주차	일시	4 월 3 일 14 : 00 상상베이스 IB102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0
		최민재(2131142)	0
		권민서(2071403)	0
		윤지영(2631062)	0
정향준(2171351)	0		
진도	도서명: 정의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0 p. ~ 96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민채, 정향준, 윤지영, 최민재, 권민서]</p> <p>Q1. 트롤리 딜레마/염소 목동 상황에서 본인의 선택은? 조민채: 도덕적인 기준으로 일반인을 살려줬다가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최민재: 부대원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끔 목동들을 죽이진 않고 묶어놓을 것 같다. 임무 완수가 첫 번째 순서다. 권민서: (트롤리) 한 명 죽음을 선택시 의도적인 살인이 되므로 개입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직접 선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윤지영: 살려줬을 것 같다. 목동을 죽이면 시체가 많아지고 수색을 할 것 같다. 정향준: 군사 임무 중이므로 목동을 죽이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다.</p> <p>Q2. 재화 분배는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가? 윤지영: 답은 없지만 미덕을 중시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향준: 자유의 존중이 중요하다. 복지의 극대화로만 재화를 분배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 같다. 권민서: 복지, 자유, 미덕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 한 것 같다. 조민채: 미덕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지와 자유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민재: 자유의 존중.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 극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덕인지 악덕인지는 자기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p>		

	일시	4 월 10 일 13 : 30 상상베이스 IB10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최민재(2131142)	O
		권민서(2071403)	O
윤지영(2631062)		O	
	정향준(2171351)	O	
진도	도서명: 정의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95 p. ~ 210 p.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민채, 윤지영, 최민재, 정향준, 권민서]</p> <p>Q1. 자유의 존중은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 걸까? 조민채: 법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다.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 권민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 기준으로. 최민재: 진정한 자유는 없다. 진짜 '자유'는 국가 이전의 상태인 것 같다. 지금 사회에선 법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자유롭지 않나 싶다. (합의된 선을 지키는 것) 정향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 법을 어기지 않는 선. 사회의 시선이 안 좋아 지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윤지영: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 존중, 제한 다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 같은 때엔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p> <p>Q2. 시민의 의무를 돈으로 대체하면 시민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옳은가? 권민서: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생각이다.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 같다. 정향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대체되는 행동이 악용되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 같다. 조민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지면 시민성이 약화될 것 같다. 작금의 '누칼협' 같은 상황이 그렇다. 윤지영: 돈의 기준으론 부자들은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미덕적으로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아예 제한하자고 하는 것엔 회의적이다. 최민재: 의무 자체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의무는 모두가 해야하기 때문에 의무인 것이 대체의 자유가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p>	

	일시	5 월 8 일 13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IB104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최민재(2131142)	O
		권민서(2071403)	O
		윤지영(2631062)	O
	정향준(2171351)	O	
진도	도서명: 정의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211 p. ~ 272 p.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민채, 최민재, 권민서, 정향준 (윤지영 사진 누락)]</p>	
		<p>Q1. 우리가 무지의 장벽 뒤에 존재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까?</p> <p>최민재: 장벽 안에선 차등의 원칙에 적용은 하겠으나 현재 살고있는 상황에서는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기가 어렵다.</p> <p>권민서: 장벽 안에선 적용할 것 같다. 분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다.</p> <p>정향준: 익명이고 무지의 장벽이라면 원칙에 합의할 것 같다. 현실에선 극단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p> <p>조민채: 내가 안에 있어도 합의할 것 같다. 무지의 장벽 자체가 우리가 정말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환기하는 이론 같다.</p> <p>윤지영: 무지의 장벽 안에서도 밖에서도 합의를 할 것 같지만 극단적인 것은 바라지 않는다.</p> <p>Q2. 과거의 잘못이나 차별을 현재의 세대가 보상해야 할까?</p> <p>권민서: 한국이나 일본을 생각하면 현 세대가 보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나 자식 관계는 고민이 된다.</p> <p>조민채: 보상을 해야하긴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줘야하는지, 언제까지 줘야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p> <p>최민재: 현재 세대에선 책임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독일처럼 후세대에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등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p> <p>정향준: 과거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공동체 의식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게 옳은 것 같다.</p> <p>윤지영: 제대로 알고 합리화하지 않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다.</p>	

	일시	5 월 15 일 13 : 30 장소명 상상베이스 IB104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0
		최민재(2131142)	0
		권민서(2071403)	0
		윤지영(2631062)	0
	정향준(2171351)	0	
진도	도서명: 정의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273 p. ~ 356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정향준, 권민서, 최민재, 조민채, 윤지영]</p> <p>Q1. 자신을 정의할 때 내 선택이 중요한지, 나의 배경(소속감)이 더 중요한지? 최민재: 배경(소속감)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 또한 소속감의 영향을 받고 발현된 선택인 것 같다. 권민서: 배경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 의지란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향준: 소속감, 배경이 중요하다. 축구를 할 때 개인으로 게임을 할 수 없듯이 집단의 소속감이 좀 더 중요하다. 윤지영: 배경이 더 중요하다. (장발장 상황을 비유하며) 이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배경이 만든 범죄라고 본다. 생계형 범죄는 처벌을 낮게 받는 것으로 안다. 조민채: 자신을 정의내릴 때라면 내 선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선택해온 것이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p> <p>Q2.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정의의 실현'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특수한 충직'이 충돌할 때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권민서: 범죄 죄질에 따라 다르다. 범죄라면 자수를 하라고 하거나 신고할 것 같다. 교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 최민재: 법은 공동체의 규칙이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민채: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라면 더욱 직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윤지영: 살인같은 게 아니라면 경미한 범죄는 눈 감을까 싶었는데 훔치는 걸 상상하니 안 될 것 같다. 신고할 것 같다. 정향준: 죄의 무게와 가족이나 친구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큰 범죄가 아니면 흐린 눈을 할 것 같기도 하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조민채(2311250)	처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 '이 책은 어떠한 게 정의인지 알려주는 책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읽어볼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에게 각자의 정의가 있다'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A인가 B인가 물어봤을 때 당연히 B라고 생각하던 게 정말 당연한 건지, 정말 A보다 B가 나은지 스스로 고민해보게 된 것 같다. 독서클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 것도 좋았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감도 하고 반박도 하면서 우리가 같은 걸 두고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한 게 특히 좋았다. 유의미한 대화란 그것에서 오는 것 같다. '소통'.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맥락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가며 서로의 가름선을 찾아가는 과정. 모든 관계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모임 안에서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재밌었다!
	2	최민재(2131142)	과거에 한 번 읽어 보았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고 전에는 혼자만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생각을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책에 정의에 대한 정답은 없는 책이지만 혼자 책을 읽었던 당시에는 누군가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해 나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이번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3	권민서(2071403)	정의란 무엇인가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의와 공정함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든 책이었다. 특히 역차별과 능력주의 비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전에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으며 개인의 환경과 기회 또한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역차별 역시 단순히 불공정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독서클럽에서 사람들과 토론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 같은 내용을 읽고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정의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4	윤지영(2631062)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은 필독서로 유명하기도 하고 안의 트롤리 딜레마도 흥미로워서 언제가는 읽어보고 싶었다. 읽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운 문체에 놀랐지만 그 안의 들어있는 내용은 심오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정답이 없는 내용이고, 앞으로의 사회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매주의 질문을 준비했다. 많은 의견 중에는 정말 흥미롭고 이것을 가치로 삼아 앞으로의 사회에서 써도 가능할 것 같은 의견도 있었고, 나의 상황에 맞아 배워가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과 질문을 주고 받으며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다. 또한 매번 의견을 정리해주시고 보고서와 공간예약을 맡아주신 팀장님 덕분에 모임을 편하게 온 것 같아 고맷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5	정향준(2171351)	평소에 '정의란 무엇인가' 느낌의 책을 읽어보아야지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읽게 되어 우선 좋았다. 처음에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얻어갔고, 독서 클럽 모임을 통해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들도 듣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 같다. 특히 이 책은 조원들끼리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기에 아주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이 없어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조원분들과 토론을 하면서도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기준들이 자주 변하는 경험을 했던 거 같은데 내가 모순적으로 살고있었구나 라는 것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다. 다음번에도 이런 모임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